

문학교육의 나아갈 길

태 혜 숙

대구효성가톨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지난 해는 책의 해였는데 올해는 문학의 해라고 한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인지 이런 구호 없이 지냈다. '90년대 들어 책이니 문학을 들먹이게 된 것은 우리의 독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아 일견 반갑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왜 새삼 문학의 해라는 구호까지 내걸어야 하는지 씩씩하기도 하다. 생활 형편이 좀 나아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문학작품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학의 해라는 이벤트성 행사를 벌이지 않으면 문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정도가 된 문학의 위기 현상도 엿보인다. 흔히들 문학의 위기를 영상 문화의 보급과 확대라는 '90년대 문화환경의 변화에서 찾는다. 물론 그런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과 정보혁명 시대에 흔들리고 있는 인문 문화적 가치의 위상과 같은 더 근본적인 위기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문 문화적 가치의 전승과 보전, 계승은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특히 어문학 계열이 맡아 왔다. 그런데 최근에 만연하고 있는 기술우위주의, 직업교육의 분위기로 인해 어문학 계열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인문 문화의 함양이라는 목표는 염두에도 없다. 강사 시절에 허만 멜빌(19세기 미국 소설작가, 『백경』으로 유명함)의 단편소설을 통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습득케 하려고 했다가 남학생들에게서 거센 항의를 받은 적 있다. 지금은 여학생들도 문학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올 1월에 처음으로 대학 입시생들의

면접을 보았는데, 학생들이 영문과에 지원하는 목적은 한결같이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앞으로 복수전공제나 학부제가 실시되면 인문사회 계열의 군소학과들이나 불문과나 독문과를 비롯한 다른 어문 계열 학과는 더욱 입지가 좁아져 갈 것이다. 그런데 영문과만은 예나 다름없이,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확실히 자리잡은 요즈음 오히려 더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영문과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문과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어도,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끄떡없다고 좋아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 문제들 중 하나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려고 애쓰지만, 외국어 구사 능력을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점이다. 영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고, 이 필요성을 채우는 데 문학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풍부한 제재이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미국의 영화사가 만들어내는 영화가 어떤 상업적인 메카니즘 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배포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보면 미국의 문화나 풍속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여가 시간이 나더라도 책이나 문학작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영화라는 종합예술을 감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비판력이나 상상력, 감수성을 다 동원하

여 진지하게 대하기보다 문화상품으로서 소비할 뿐이다. 문학작품을 읽는 어문학 계열 학생들마저 순전히 학점을 따기 위해 교재만 겨우 읽는 실정이며, 심지어 작품을 읽지도 않고 요약된 내용을 외우기까지 한다.

우리는 이같은 대학생들의 실상을 놓고 도덕적이고 고답적인 시각에서 학생들을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전반적인 우리 현실이 더욱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문 교육의 위기와 관련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대학 현실, 전반적인 사회 현실 등 여러 층위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니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해결을 바랄 수 없다. 또한 인간적인 가치에 적대적인 과학기술이나 정보혁명에 등을 돌리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법에 머물러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인문 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학 교육의 활성화란 어렵고도 복합적인 과제이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무엇보다 문학 교육 담당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크다는 것을 실제 강단 경험에서 많이 느낀다.

학부 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영어회화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쫓아다니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분명히 서 있지 않은 까닭에 그들의 눈동자는 공허하다. 이들에게 영미 문학작품이나 비평, 산문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 자연과 인간, 삶의 가치와

목적은 둘러싼 현재의 관심을 일깨우면 풀려 있던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문학 교육이 처한 위기로 보자면 학생들보다 교육 담당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성인들에게 필요한 비판의식이나 상상력, 심미적 감수성을 대학 교육과정에서조차 키워주지 못하면서 백날 책의 해, 문학의 해라고 떠벌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문학이라는 제재를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 가치와 목적을 세우려고 했고, 영어회화 능력은 꼭 필요할 때 나중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용영어 구사 능력은 물론 대학에 진학한 제1차적 목적마저 그때의 커리큘럼이나 교육방법으로써는 잘 달성되지 않았다. 나중에야 자기 삶의 가치는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당시 교육과정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크게 변했고 지금도 급변하고 있는데 어문학 계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은 이에 걸맞게 변신해 왔는가? 대학에 몸담고 문학 교육 담당자로 있는 나 자신은 어떤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되짚어 보게 된다.

내 분야가 페미니즘 비평이어서 '90년대에 일기 시작한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학생들에게 접목시키는 데 유리하였다. 나아가 기존 영문학 교육방식

의 남성 중심성을 깨뜨리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다시 보게 하는 텍스트를 읽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여기서 가장 좋은 텍스트는 버지니아 울프의 평론집이나 소설이었다. 물론 예전에도 울프는 주요한 20세기 영국 작가로서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작가였다. 하지만 최근에 현대비평이론의 핵심적인 한 분야로서 부상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기존 텍스트를 새로 읽는 작업 자체가 이미 현재적 관심사를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읽는 것 같았다.

특히 울프의 유명한 『자기만의 방』이나 『3기니』 같은 작품은 아주 짧은 에세이기 때문에 긴 장편소설이 주는 부담감이 없어서 매우 효과적인 텍스트였다. 울프의 에세이들이 문제 삼는 당대 사회의 성차별 의식과 그로 인한 여성의 불평등이나 왜곡된 남성, 현 서구 문화의 실상 등에 대해 학생들은 바로 우리의 문제로 자각하고,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가치를 유지하며 일구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울프의 짧은 에세이는 현대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비록 여러 귀중한 통찰만 보여주는 단계이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심어준 셈이다.

비록 현대비평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더라도 현대비평이론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을 반영하는 문학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의 문학 교육 담당자들이 강단에서 현재적 관심사와 접목된 문학 교육 방식을 거듭 실험해 봄으로써 몇 십 년간 답습되어 온 과거의 방식을 탈피할 수 있다. 새로운 문학 교육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도 바뀔 것이다. 정부와 생산 위주의 현대 과학기술과 남성 중심적 세계관이 파괴한 생태계의 질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전체에 대한 감각 등을 중심으로 현 우리 시대의 본질과 나아가야 할 방향, 가꾸어야 할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도록 말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울프의 에세이를 언급한 것은 비단 특정 텍스트의 개발과 선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기말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생태학적 인식과 페미니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내용은 아직 확고하게 정립

되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 내용을 확대하면서 변모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문학적 가치의 위기를 의식하는 모든 문학 교육 담당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생태학적 인식과 페미니즘적 인식을 자기화하고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자 한다. 대학의 문학 교육 담당자들이 새 세기를 선도할 주요한 인식을 어떤 식으로든 각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작은 실천을 축적하는 작업이야말로 세기말의 불안과 위기에 대처하는 진정한 힘을 기르면서 세계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는 길일 것이다. ■

태혜숙/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구효성기독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연애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역서로 『대지의 딸』, 『3기니』 등이 있으며, "현대 영미 여성해방 비평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